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 태현의 『보살계본중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Korean Buddhist Literature

- Focused on Taehyun's *Bosalgyebonjonggyo* -

김 천 학 (Kim, Cheonhak)**

◁ 목 차 ▷

- | | |
|--|----------------------|
| 1. 문 제 | 3.2 『보살계본중요』의 확장성 고찰 |
| 2. 한국찬술불교문헌의 주석서 개략 | 3.3 확장성의 의미 |
| 3.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 고찰:
태현의 『보살계본중요』를 중심으로 | 4. 결 론 |
| 3.1 태현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 | <참고문헌> |

<초 록>

본고는 한국불교를 다양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문헌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석서에 주목하여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것은 한국불교가 주석서를 통해 외연이 확장되고 한국불교에 내포된 사유가 계속 전파된다는 일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한국학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한국인 11인(신라9명, 고려·조선 각 1명)의 주석서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 특히 태현의 『보살계본중요』의 주석서인 『보살계본중요초』에 주목하여 한국학의 확장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보살계본중요』(이하 『중요』로 약칭)는 『범망경고적기』와 함께 보살계를 중시하는 일본에서 학습의 전형이 된 문헌이다. 태현 이전에 중국의 지의, 법장 등이 신라에서도 원효와 의적 등 지명도 높은 다수의 인물이 『범망경보살계』에 관한 주석서를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범망경보살계』에 한해서는 태현의 주석서가 더 중시되었다. 그만큼 태현의 『범망경』 해석이 일본의 보살계 해석에 중시되었다는 뜻이다.

『중요』는 저술된 이후 바로 일본으로 전해지며, 일본에도 『범망경고적기』가 전해지는 시기에 함께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도봉(道峯)의 서문이 쓰여지면서 태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으로 전래된다.

일본에서는 도봉의 서문이 붙은 『중요』의 주석서가 9종 이상 저술된다. 한편, 도봉의 서문이 붙지 않은 주석서도 3종 이상에 이른다. 이렇게 『중요』는 일본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중국에서 태현을 높이 평가한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불교문헌인 태현의 『중요』가 당과 일본에서 중시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주석서로 재탄생하면서 한국불교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한국불교의 확장성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한국불교의 문헌이 주석서를 통해 해석되고 재탄생하는 과정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헌은 중국불교문헌에 못지않게 중국과 일본에서 연구되고 주석된다. 이것은 한국불교가 중국과 일본에서 그만큼 중시된 것을 의미한다. 한국불교가 중시되면서 전파되고 생성되고 재탄생되는 과정을 거쳐 새롭게 확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확장성을 탐구하는 것은 한국학의 범주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는 이와 같은 주석서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 연구의 범위 내지는 한국학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要語: 한국불교의 확장성, 한국찬술불교문헌, 태현, 보살계본중요, 보살계본중요초(菩薩戒本宗要鈔)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본 논문의 집필에 사본을 제공해 준 本證寺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 교수(du_hyong11@naver.com)

접수일: 2017년 6월 12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0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boundary of Korean studies by paying attention to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mmentaries on the Buddhist texts written by Koreans. This is because the study on the East Asian commentaries on Korean Buddhist literatures can broaden the scope of Korean studies in that Korean Buddhism extends its scope throug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mmentaries of Korean Buddhist literatures and its extended domain continues to spread through various speculati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mmentaries of 11 Koreans (9 Silla, 1 Koryeo, 1 Chosun) surveyed to date, and in particular, focusing on *Bosatsukaihonsuyousho* (菩薩戒本宗要鈔), a commentary on Taehyun (太賢)'s *Bosalgyebonjongyo* (菩薩戒本宗要, hereafter Jongyo), I examined the expansion and significance of Korean studies.

Jongyo is the document which became the standard of the practice together with *Beommanggyeonggojeoggi* (梵網經古迹記) in Japan which places emphasis on the bodhisattva precepts. This point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Taehyun was regarded more important even though there were many characters before him such as Zhiyi (智顗), Fazang (法藏) in China and Wonhyo (元曉), Uijeog (義寂) in Silla dynasty. This shows that Taehyun's interpretation of *Beommanggyeong* was important in the understandings of bodhisattva precepts in Japan.

It is presumed that Jongyo was handed over to China soon after it was written and it was handed to Japan as well at the time of *Beommanggyeonggojeoggi*'s passing to Japan. In China, since Daofong (道峯)'s preface had been attached, the significance of Taehyun is highlighted and Jongyo with the preface was brought to Japan again. Thereafter more than nine kinds of annotations on Jongyo with Daofong's preface were written in Japa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ree kinds of commentaries on Jongyo without Daofong's preface. In this way, Jongyo was spread widely in Japan and the fact that Taehyun was highly appreciated in China could be one reason for this situation. This is an example of expanding the scope of Korean Buddhism by the process in which Jongyo, a Korean Buddhist literature was appreciated in China and Japan, and many commentaries were written as well in China and Japan.

Key words: Korean studies, Korean Buddhist Literature, Taehyun(太賢),
Bosalgyebonjongyo(菩薩戒本宗要), *Bosatsukaihonsuyousho*(菩薩戒本宗要鈔),
bodhisattva precepts

1. 문 제

한국불교문헌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연구가 있었다. 우선 한국불교문헌의 개념부터 고찰한다. 한국 불교문헌은 한국에서 간행된 문헌과 한국인이 찬술한 문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 및 조사는 이 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불교문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으로 유출된 문헌 혹은 외국에서 간행된 한국인 찬술불교문헌도 다수 존재한다. 한 예로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신라불교문헌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에 전승되어 존재한다. 또한 대장경류는 고려시대부터 인정되어 일본에 유출되기도 한다.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에는 이러한 유출문헌이 조사대상이 되곤 한다.¹⁾ 그런데, 향후 한국불교를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문헌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석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의 불교사상이 동아시아로 확장해 나가는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불교사상이 재탄생하면서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로 인하여 한국불교에 대한 한국 이외의 사람들의 인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에 들어와 외국인이 한국불교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다만, 현대의 연구는 객관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이 중요시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석서는 원저를 이해하기 위해 저술되며 비판하기 위해 주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석서를 통해서 한국불교 및 한국불교사상이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불교가 주석서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사상성이 계속 전파된다는 일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현대인의 객관적 연구와는 결을 달리 한다. 셋째, 한국학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 번째 한국학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한국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1) 한국에 대하여 쓰여진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 2) 한국 및 외국과의 비교연구
- 3) 한국을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쓰여진 이론적 연구²⁾

위 세 범주가운데 들어가면 한국학이라는 의미인데, 이후 서술하려는 한국인찬술불교문헌에 대한 외국인의 주석서류는 아마도 기존의 한국학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것 같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국학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주석서류를 조사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한국찬술불교문헌에 대한 외국인의 주석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국학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서울: 삼경문화사, 2012).
 2) 한국학관계 논저목록 전산화작업 운영위원회, 『한국학관계 논문집 및 목록집 안내』(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4.

본고는 한국학의 확장성을 불교를 통해 보기 위한 것이며,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문헌 가운데 중국과 일본 승려들의 주석 대상이 됐던 태현(太賢)의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를 소재로 한국불교가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가는 흐름을 고찰하고 확장성의 의미를 탐구하여 향후 한국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찬술불교문헌의 주석서 개략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한국인 찬술불교문헌은 집(述而不作) 혹은 편집(會編)을 포함하여 전 14책 324종이다. 물론 이것만이 한국인 찬술불교문헌의 전부는 아니다. 2013년 보고에 따르면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문헌은 신라문헌 14종, 집일본 8종, 고려문헌 5종, 조선문헌 37종으로 총 64종에 이르며, 이들 문헌은 한국불교전서 증보대상 후보로 제시되었다.³⁾ 여기에 최근에 조사하고 있는 조선후기 사기를 포함하면 그 양은 몇 십종이 더 늘어난다.⁴⁾

2013년의 보고에서는 한국찬술불교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주석서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불교의 확장성에 주목한다면 한국불교문헌에 대한 외국인의 주석서도 전서형식으로 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인 찬술불교문헌 가운데 중국과 일본인의 주석서 일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찬술불교문헌에 대한 중국 및 일본의 주석서 일람

저자	찬술문헌	주석서 저자	주석서
圓測	成唯識論疏	*未詳	神通論(存)
元曉	無量壽經宗要	智憬	無量壽經宗要指事(失) 無量壽經宗要指事私記(失)
		凝然	兩卷無量壽經宗要科文(失)
	菩薩戒本持犯要記	賴瑜	持犯要記略鈔(失)
		仲範	持犯要記俗書勘文抄(存)
		眞圓	持犯要記助覽集(存)
		凝然	持犯要記略述(失)
		湛睿	持犯要記聞書(存)
	金剛三昧經論	*未詳	金剛三昧論私記上下(失)
	中辺分別論疏	湛睿	中辺分別論疏卷3要文(存)

3) 김종진, “한국불교전서 증보 편찬의 방향,” 2013년 불교학술원 하계 워크숍 『한국 불교문헌의 집성, 편찬, 서비스 현황과 과제』 (서울: 동국대학교, 2013), 71.

4) 조선후기 불교사기에 대한 정리는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연구 -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 (성남: 신구문화사, 2010) 250-251에 자세한다. 여기에 54종이 정리되어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 토대연구팀에서 조사한 것은 이것을 훨씬 상회한다.

저자	찬술문헌	주석서 저자	주석서
	*未詳	*未詳	遊心安樂道(存)
			元曉和尚緣起(失)
			元曉事抄(失)
			華嚴緣起(存)
義相	一乘法界圖	*未詳	華嚴圓融讚(存)
		*未詳	倍爐秘曲(存)
	華嚴經問答	*未詳	華嚴經問答等要文(存)
太賢	菩薩戒本宗要	叡尊 외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存) 외
	梵網經古述記	慈泉 외	梵網古述記撮要(存) 외
	廣釋本母頌	希遠・利見(唐)	大乘心路章記(失)
		理門(日)	本母頌記(失)
憬興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凝然	太賢法師行狀(失)
圓弘	法華經論子注	善珠	無量壽經贊要(失)
*未詳	起信論一心二門大意	湛睿	法華經論子注綱要(存)
月忠	釋摩訶衍論	義城 외	科註一心二門大意(存) 외
		法敏(唐) 외	釋摩訶衍論疏(存) 외
不可思議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賴寶(日) 외	釋摩訶衍論勘注(存) 외
		空海	遮那經王不思議疏傳(存)
		覺和	供養法疏上下聞書(存)
		宥範	大日經供養次第法疏私記(存)
			供養法記(失)
		賴豪	不思議疏口訣(失)
		曇寂	供養法私記(失)
		良譽	不思議疏四種秘釋(存)
諦觀	天台四教儀	涼汰	不思議略疏鈔(失)
		隆瑜	大日經供養法疏私記合(失)
休靜	禪家龜鑑	從義(宋) 외	天台四教儀集注(存) 외
		鶴陵崇言(日) 외	天台四教儀集註(存) 외
		虛林全威 외	禪家龜鑑五家辯(存) 외

이상으로 신라 9명, 고려·조선 각 1명 계 11명의 찬술문헌에 대한 주석서를 열거할 수 있다. 그 외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불교인물의 전기도 포함된다. <표 1>에서 제시한 주석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측의 주석서로 거론한 『신통론(神通論)』은 도쿠가와미술관(徳川美術館藏)에서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으로서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의 오치아이 도시노리(落合俊典)가 원측 탄신 140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1월에 동국대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2014년 7월에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움에서 다시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신통론』은 『성유식론』의 주소(註疏)가 아닐까 생각한다. 통상 경문의 소는 권수부터 순서에

따라 어의해석을 하지만, 『신통론』은 그렇지 않다. 즉 『성유식문소』라는 서명을 붙이지 않은 것이다. 『성유식론』과 밀접히 관련있으면서도, 소 또는 주가 아닌 것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경위를 찾아가면서 본서의 서명을 비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⁵⁾

본서는 쿠카이(空海)의 필(筆)로 전승된다고 한다.⁶⁾ 이와 같은 전승으로 볼 때 저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된다.

다음, 원효의 저술에 대해서는 네 문헌에 대해 주석서와 진기가 찬술되었다. 정토종 계통의 『무량수경종요』에 대해서는 일본 나라시대 화엄가이면서 정토종에도 밝았던 지교(智憬)가 『무량수경종요지사(無量壽經宗要指事)』와 『무량수경종요지사사기(無量壽經宗要指事私記)』를 저술하였으나 일실되었다.⁷⁾ 또한 가마쿠라시대 교넨(凝然; 1240-1321)에게도 『양권무량수경종요과문(兩卷無量壽經宗要科文)』 1권이 있었지만 일실되었다.⁸⁾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는 원효 저술로 유통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원효 친작설이 부정되면서 저자 문제에 대해 여러 설이 제기되었다.⁹⁾ 최신의 설로서는 『무량수경종요』에 대한 지교의 주석서라고 추정되기도 한다.¹⁰⁾ 이 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신 자료의 출현이 필요하지만, 『유심안락도』에 원효의 『무량수경종요』가 내용의 1/3을 차지하는 사실로도¹¹⁾ 『유심안락도』를 원효 저술의 주석서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보살계본지범요기』는 일본에 전래되어 748년에 필사된 후, 사이초(最澄 767-822)의 『현계론(顯戒論)』에 인용되며,¹²⁾ 이후 꾸준히 전승되어 현재 15종의 사본과 판본이 확인된다.¹³⁾ 현재 본서에 대한 주석서는 5종 정도를 해야린다. 이 가운데 라이유(賴瑜; 1226-1304)의 『지범요기약초(持犯要記略鈔)』와 교넨의 『지범요기약술(持犯要記略述)』은 일실되어 볼 수 없다.

신엔(眞圓)의 『지범요기조람집(持犯要記助覽集)』은 1283년에 저술되었다. 『조람집』에 대해서 김상현은 『지범요기』 강의를 위한 노트였고 동시에 연구서라고 평가한다.¹⁴⁾ 추한(仲範)의 『지범요기속서감문초(持犯要記俗書勘文抄)』도 주목할 만하다. 본서는 남도의 유학자 후지와라노 추한(藤原仲範)의 저술로서 특필할만하다. 불교학자가 아닌 유학자가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라, 원효 등 『지범요기』에 나오는 문구를 설명하거나 인용문구를 송본에 의해 감문하는 학풍을 지니고

5)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 日本古寫經研究所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http://www.icabs.ac.jp/koshakyo/symposium20140726/Ochiai2.html>>

6) 앞의 홈페이지 참조.

7) 『東域傳燈目錄』 T55,1150c.

8) 東大寺敎學部, 『凝然大師事績梗概』 五, 考證凝然大德撰述目錄 (京都: 東大寺, 1971), 307.

9) 愛宕國康, 『『遊心安樂道』と日本仏敎』 (京都: 法藏館, 2006), 7-46.

10) 愛宕國康(2006), 59-75.

11) 愛宕國康(2006), 33.

12) 김상현, 『원효연구』 (서울: 민족사, 2000), 166.

13) 박광연, “보살계사상의 전개와 『菩薩戒本持犯要記』,” 원효성사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 - 원효 찬술문헌의 계보학적 성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HK연구단 주최, 2017년 5월 19일-20일, 자료집, 88-93.

14) 김상현(2000), 170.

있다.¹⁵⁾ 그 외 단에이의 『문서(聞書)』(미확인) 등이 있어 원효의 『지범요기』가 일본에서 가마쿠라시대 이후 널리 읽혔음을 추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범요기』의 사본과 간본이 많고, 주석서도 5종에 이른다는 것은 『지범요기』가 강의의 대상이 될 정도로 계율을 공부하는 승려들에게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만년 작으로 『화엄경소』, 『대승기신론소』와 함께 원효를 대표하는 저술이다. 본서에 대해서는 당의 종밀(宗密)이 통독하고 자주 활용하였으며, 일본에는 주석서가 저술될 정도로 중시되었다.¹⁶⁾ 다만, 주석서가 일실되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중변분별론소』에 대해서는 『중변분별론권삼요문』이라는 일종의 주석서로, 현재 단에이(湛睿)자필 주석서의 단간이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에 존재한다.¹⁷⁾ 이 내용은 단에이가 원효 『중변분별론소』에서 요문을 모은 것이다. 비록 적극적인 주석서는 아니지만, 원효 저술에서 어떤 내용을 특히 중시했는가를 볼 수 있다. 지눌의 『화엄론절요』와 비슷한 성격의 주석서인 것이다. 이러한 저술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화엄경문답』과 『법화경론자주』에 대해서도 저술되었다. 13-14기의 일본불교의 학풍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세 문헌 모두 가나자와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원효 전기도 일본에서 유통되었다. 그것이 『원효화상연기』와 『원효사초』이다. 이 저술은 일문으로만 확인되는데,¹⁸⁾ 둘 다 원효를 디그나가(陳那)보살이라고 높이고 있다. 후쿠시지닌(福土慈愍)은 법상종 관련 신라승의 찬술로 추정하지만,¹⁹⁾ ‘羅國元曉師’, ‘羅國師’라는 신라 이외에서 부를 만한 호칭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와 같은 상정이 타당하다면, 일본에서 원효가 존중되면서 원효전에 해당하는 문헌이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물의 재탄생을 통한 확장을 의미한다.

『화엄연기』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묘에(明惠; 1173-1232)의 만년 혹은 그의 제자 기카이(喜海; 1178-1250)에 의해 기획되었다고 추정되는데,²⁰⁾ 전6권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원효전은 2권, 의상전은 4권에 해당한다. 『송고승전』에 의거하여 그런 원효상이고 의상상이지만, 의상과 원효의 전기가 주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원효화상연기』와 『원효사초』와 성격이 비슷하다.

『화엄연기』는 묘에의 사상과 그가 경험한 일들이 원효·의상과 아주 흡사한 점으로 보아, 묘에의

15) 牧野和夫, “仲範撰述の一書『持犯要記俗書勘文抄』一紹介と翻印, 附二十二卷本『表白集』目錄一覽等一,” 『實踐國文學』 42(東京: 實踐女子短期大學, 1992), 69-91.

16) 김천학, “금강삼매경론,” 『테마불교』 5(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77-113.

1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가나자와현립 가나자와문고 공동 특별전시회 도록 『안녕하세요! 원효법사 - 일본에서 발견한 신라·고려불교 -』 (神奈川: 金澤文庫, 2017), 해설 No.74.

18) 福土慈愍, 『新羅元曉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2004), 102-103, 315.

19) 福土慈愍(2004), 102.

20) 愛宕國康(2006), 132.

자전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평가가 있다.²¹⁾ 두 화엄조사의 생애와 사상에 묘예의 사상과 체험이 이입되었다는 의미이다. 묘예의 전기와 대비하여 『화엄연기』를 바라볼 때 묘예가 『화엄연기』를 제작한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이해될 것이다.

묘예가 48세 때 조쿠의 난(1221年)이 일어난다. 이것은 고토바(後鳥羽)상황이 가마쿠라막부의 호조 요시토기(北條義時)를 토벌하려고 병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패한 난을 말하는데, 그 때 묘예가 조정 편에 섰던 패잔병을 감싸안고, 미망인들에게는 선묘와 같은 호법신장이 되도록 한 것으로 유명하다. 선묘설화와 관련된 의상은 바로 묘예 자신인 것이다. 그리고 원효는 광명진언을 외우는 밀교승으로도 묘사되는데,²²⁾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원효에 투영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원효가 밀교승으로도 이해되었다는 점이다. 즉 원효를 민중을 교화하는 밀교승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물론 원효가 민중교화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밀교승은 아니었다. 묘예에 의해 원효가 재해석된 것인데, 그것은 『유심안락도』의 영향이다.²³⁾ 즉, 『화엄연기』는 원효, 의상의 행장을 그림과 글의 형식으로 일본에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의상의 『일승법계도』에 대한 주석서로는 『법계도기총수록』이나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가 유명하듯이, 신라와 고려에서 다종의 주석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법계도』 7언30구에 악보를 붙여 의례에 사용된 것이 일본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에 『화엄원용찬』이라는 명칭으로 4종류 전해진다.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역시 가나자와문고에 바이로비곡(倍爐秘曲)이 있다. 이와 같이 『법계도』 문문구구에 대한 주석은 아니지만, 법성계에 악보를 붙여 의례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법계도』가 전파되면서 의례로 재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이다.²⁴⁾

한편, 의상의 강의록인 『화엄경문답』은 법장의 저술로 인식되어 헤이안시대부터 최근까지도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문헌에 대한 주석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要文』인데, 법장에 대한 해석이라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정리했겠지만, 실상은 의상의 사상에 대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원홍(圓弘)의 『법화경론자주』에 대해서는 2013년에 비로소 연구되어 최근에 신라 법상종 인물임이 밝혀졌다.²⁵⁾ 단에이(湛睿)가 정리한 『法華經論子注綱要』(金澤文庫所藏) 역시 신라 법상종 문헌에 대한 해석이 될 것이다.

경흥(憬興)의 저술은 일본에서 나라시대부터 유통되고 인용된다.²⁶⁾ 『동역전등목록』에는 나라시대의 법상종 승려인 켄주(善珠)의 저술로 『무량수경찬초(無量壽經贊鈔)』 1권이 기록되어 있다.²⁷⁾

21) 白洲正子, 『明惠上人』(東京: 新潮社, 1999), 162-3.

22) 愛宕國康(2006), 150-157.

23) 愛宕國康(2006), 157.

2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가나자와현립 가나자와문고 공동 특별전시회 도록(2017), 해설 No.31-34.

25) 김천학, “『법화경론자주』 사본의 유통과 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 24(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156-180.

26) 이에 대한 증거는 아래의 저술에서 검색함으로써 충분히 확인된다. 福士慈稔, 『日本佛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教認識に関する研究』 제1권 日本天台宗, 제2권上 三論宗, 제2권下 法相宗, 제3권 日本華嚴宗(山梨: 身延山大學, 2011-2013).

27) T55.1150c.

이것에 대해서 이노우에 미즈타다(井上光貞)는 『경전전등록』의 기록법으로 봤을 때 켄주의 위 저술은 경흥 저술의 주석서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기술한다.²⁸⁾ 켄주는 자신의 유식관련 저술에서 경흥을 어느 정도는 인용하는데 그렇다고 가장 중시한 신라 유식학자는 아니다.²⁹⁾ 그러나 정토관련 저술에서는 같은 법상학자인 경흥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신론일십이문대의』는 진제삼장의 제자인 지개(智愷) 술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경전이 신라시대에만 유통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신라찬술설이 부각된 문헌이다.³⁰⁾ 이 문헌은 일본에서만 유통되는 문헌인데, 주석서로는 과주뿐 아니라, 『기신론일십이문대의장지』, 『기신론일십이문대의청록』 등의 주석서가 일본에 현존한다.

『석마하연론』은 기신론주석서로서 신라 월충(月忠)의 저술이라는 전승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법장의 설에 원효의 회통의 방법과 의상계의 문제의식을 답답하면서 독자의 논의를 전개한 문헌이다.³¹⁾ 특히 말나식에 대한 원효의 특수한 설이 문제가 되어 이것을 법장이 설과 회통하는데, 이것은 원효의 화쟁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³²⁾ 본서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는 당 성법(聖法)의 『석마하연론기』 1권과 법민(法敏)의 『석마하연론소』이다. 이후 송의 법오(法悟)와 요(遼)의 지복(志福)이 주석서를 쓴다. 일본에서는 구카이(空海)가 진언종의 소의경론에 포함시킴으로써 많은 주석서가 쓰여졌다.³³⁾ 이 저술에 대해서 찬술지역을 중국으로 비정하는 연구도 있지만,³⁴⁾ 찬술지가 중국이라 해도 원효와 의상계 사상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은 신라인의 찬술일 가능성을 농후하게 한다. 향후 찬술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신라로 열어 놓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마하연론』의 신라인 찬술설이 확정될 때 본서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촉발될 것이다. 이 작업은 현재 필자가 책임자로 있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토대연구 『한국찬술 불교문헌의 확장형 서지 DB 및 디지털지형도 제작』(2017.9.1.-2019.8.31.)에서 진행 중이다.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에 대해서는 일본의 쿠카이(空海)의 주석서인 『사나경왕부사의소전(遮那經王不思議疏傳)』을 비롯하여 주석서가 8종에 이른다. 이것으로 보아 불가사의의 『공양차제법소』가 일본의 진언종에서 중시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한(宥範; 1270-1352) 『대일경공양차제법소사기』는 불가사의 저술의 전 문장에

28) 井上光貞, 『信訂 日本淨土教成立史の研究』(東京: 山川出版社, 1981), 76.

29) 福土慈稔, 『日本佛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教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佛教認識(法相宗の部) -』 제2권下 (山梨: 身延山大學, 2012).

30) 최연식, “신라불교 문헌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불교학연구』 13(서울: 불교학연구회, 2006), 5-34(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공편,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394-422에 재수록).

31) 石井公成, “第5章 新羅華嚴思想展開の一側面,” 『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96).

32) 石井公成(1996) “第5章 新羅華嚴思想展開の一側面”.

33) 김지연, 『釋摩訶衍論의 註釋的 研究 - 海東疏와 法藏義記의 比較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3)의 2장 1절 『대승기신론』의 주석서 부분에 자세히 다룬다.

34) 張文良, “『석마하연론』의 찬술지에 관하여 - 『석마하연론』의 ‘사상’해석을 단서로 삼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공편,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297-322.

대한 주석서인데, 그는 불가사의의 주석이 경전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실제 사례를 보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거나, 구체적 설명을 더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³⁵⁾ 신라의 밀교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일본에서 신라밀교를 존송했음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향후 개별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석서가 많기로는 제관(諦觀)의 『천태사교의』도 마찬가지이다. 제관의 『천태사교의』는 중국에서 찬술되고, 중국에서 주석서가 처음 만들어지며, 아마도 의천 때에 고려에 역수입되는 듯하다. 이후는 일본으로 전래되어 메이지시대 이후 100여종의 주석서가 일본에서 저술된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주석서를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중국과 일본에서의 인식 추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휴정의 『선가귀감』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에 전래되며, 『선가귀감』 자체가 간행될 뿐 아니라 주석서도 찬술된다. 현재 일본에는 『선가귀감』의 주석서로써 『선가귀감고』(연대 미상)와 고린젠이(虎林全威, 생몰연대 미상)의 『선가귀감오가변』(17세기말) 사본이 존재한다.³⁶⁾ 그러나 주석서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1635년에 처음으로 『선가귀감』이 간행되며 이 때는 일본의 구결이 붙어있지만, 1677년 이후에 간행된 『선가귀감』에는 간주(間註)본이기 때문에³⁷⁾ 일종의 주석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언급한 『천태사교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선가귀감』에 대한 주석서는 일본에서 간행된 『선가귀감』을 포함하여 언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임제종에서 간행한 『선가귀감』에는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삼척전심에 대한 주석 등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³⁸⁾ 다음은 장을 바꾸어서 태현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에 대해서 고찰한다.

3.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 고찰: 태현의 『보살계본종요』를 중심으로

3.1 태현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

태현은 신라 경덕왕 때 활약하였으며, 50여종의 저술을 지은 원효에 버금가는 저술가이다. 그 가운데 태현의 『범망경』 관련 주석서인 『범망경고적기』와 『보살계본종요』(이하 『종요』로 약칭함)는 일본에 전래되어 『범망경』 연구의 전형이 되었을 정도로 중시되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태현의 세 저술에 대한 주석서와 태현의 전기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35) 옥나영,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유통과 그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17), 86-95.

36) 오가와 히로카즈, “일본에서의 선가귀감(禪家龜鑑)간행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3(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6), 49-80.

37) 오가와 히로카즈(2016), 59.

38) 오가와 히로카즈(2016), 64-70. 이 논문에 따르면 삼척전심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긍정하는 측에서는 『선가귀감』을 증거로 제시한다.

중국과 일본의 주석서가 있는 것은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이며, 중국인의 서문이 붙어 유통된 것이 『중요』이다. 그리고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서총목록』을 통해 조사하면 그 주석서가 50여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우선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태현은 『성유식론』에서 터득한 내용을 100송으로 정리하였다. 이것이 『본모송(本母頌)』이다. ‘본모’는 법설, 법의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광석본모송』이다. 이것은 저술목록 등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예를 들어 『大乘心路(=露=略)章』, 『大乘一味章』 등이다.³⁹⁾ 그런데 『동역전등목록』에 따르면 이에 대한 주석서에 대해서 『同章記二卷(大唐國西京慈悲寺釋希遠華嚴寺僧利見聽記)』라고 되어 있다.⁴⁰⁾ 우선 지적하듯이 이만은 일본의 겐주(724-797)가 이 『기』를 인용하기 때문에 회견과 이견은 태현이 활약했던 경덕왕(742-764) 무렵의 인물로서 동시대에 활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¹⁾ 태현의 저술이 일찍이 당에 들어갔고 강의 되었으며 청강한 기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태현 또는 태현의 저술이 중시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일문으로 전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이견, 회원법사 등이 태현사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저 진성이란 말은 능히 분별하는 것으로써 주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위의 입장에서 진성은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나라시대의 법상종의 승려 겐주의 『유식분량결(唯識分量決)』에 인용된 것으로, 진성이 주어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예시된 답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일본의 『성유식론본문초(成唯識論本文抄)』(T65.529c-530a)에도 그대로 인용된다. 재인용일 것이다. 물론 짧은 문장이라 태현의 저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현의 주석서가 나라시대부터 헤이안시대까지 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태현의 저술이 중국으로 전래된 후 당에서 주석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나라시대에서부터 헤이안시대까지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리문(理門)이라는 승려가 이에 대해 주석서를 저술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⁴³⁾

『범망경고적기』에서 보듯이 50여종의 주석서가 일본에서 저술되고, 『대승심로장』이 중국과 일본에서 주석되며, 특히 중국에서는 태현의 활동시기 가운데 강의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에서의 태현의 중요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태현의 저술이 중국과 일본에서

39) 이만, 『한국유식사상』 (서울: 장경각, 2000), 277-284.

40) T55.1163a.

41) 이만(2000), 283-284.

42) 『唯識分量決』 T71.447c.

“利見希遠法師等述賢師意。彼眞性言是能別分非有法攝。可言有爲眞性空”

43) 金天鶴, “金澤文庫所藏、円弘の『妙法蓮華經論子注』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通号 126(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2012), 154-161.

유통되며 확장되는 구체적인 예를 『중요』를 통해 고찰한다.

3.2 『보살계본중요』의 확장성 고찰

3.2.1 『보살계본중요』의 내용

일본에서 감진이 754년 중국에서 일본에 온 후에 보살계를 수여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의 제자 법진(法進)의 『범망경』 주석서가 있으며, 736년 도일한 도선(道璿)에게도 역시 『범망경』 주석서가 있다. 그런데, 이들 주석서보다 젠주에 의해 태현의 『고적기』가 중심이 되고, 사이초의 저술에서도 중심적인 인용문헌이 될 정도로 이미 나라시대와 헤이안시대에 태현의 범망경 주석서가 주목받게 된다. 이후 일본에서의 『범망경』 연구는 태현 이전에 지의와 범장 등 다수의 주석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석서보다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와 『중요』가 더 중시된다. 요시즈는 태현의 보살계 사상이 『화엄경』과 『범망경』을 동일시한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태도를 일승의 이데아라고 명명하면서 중국 이상으로 신라가 중시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⁴⁴⁾

태현의 『중요』는 『범망경고적기』를 저술하기 전에 『범망경』 보살계의 요체와 대강에 관해서 서술한 저술로서 『범망경고적기』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⁴⁵⁾ 『중요』는 『지금 이 경에 의하여 잘못으로부터 지키는 요점을 해석하면 대략 3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경의 의미를 서술하는 문이다. 둘째는 능성과 소성의 문이다. 셋째는 수행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이다.』⁴⁶⁾라고 하여 크게 3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경의 명칭에 관한 설명과 보살계를 받는 사람과 보살계의 내용, 여기거나 지키는 요령에 관한 부분이다.⁴⁷⁾

그런데 『범망경고적기』와는 달리 『중요』에는 대천복사(大薦福寺) 도봉(道峰)의 서문이 실려 있다. 즉 중국에 유통이 되면서 중국승려의 관심을 끌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도봉의 서문이 언제 붙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에도 언제 『중요』가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중요』의 일본 유통은 가마쿠라시대부터 확인될 뿐 그 정확한 상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자료조사에 의해 상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현재까지 조사한 『중요』의 유통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빠른 것은 사이다이지(西大寺) 소장본으로 1347년(조와貞和 3)의 기록이 있다. 아래는 도쿄 대 사료편찬소를 검색하여 얻은 결과이다. 한자 변환 없이 서지정보 그대로 실는다. 이하 같다.

44) 吉津宜英, 『華嚴一乘思想の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91), 663-668.

45) 최원식, 『신라보살계율사상사연구』(서울: 민족사, 1999), 187-188. 본서에서는 『보살계본중요』에 관한 선행연구도 정리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46) 『菩薩戒本宗要』 T45.915b.

“今依此經釋持犯要. 略有三門. 一申經意門. 二能所成門. 三修行差別門”

47) 최원식(1999), 188, 201-202.

菩薩戒本宗要

【注記】 袋綴裝(25.3×19.0cm)

【奥書】(本奥書・別筆1) 貞和三年丁亥十二月廿三日於西大寺一室草了英心 (同筆) 于時慶長十六年仲夏十八日仙証良識書之也 (別筆2) 南都不退寺高円

【備考】 無界, 返点(墨)

그 다음이 도지 간치인본(東寺觀智院本)으로 다음과 같이 1359년(쇼헤이正平 14年)의 기록이 있다.

【書目ID】 00014452

【史料種別】 貴重書(台紙付寫眞)

【請求記号】 台紙付寫眞-448-4574

【書名】 菩薩戒本宗要 正平十四年觀空奥書本

【著者名】

【原藏者】 東寺觀智院

【出版事項】

한편 도다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서지사항을 지닌 『보살계본종요』가 있다. 이것은 도다이지(東大寺) 도서관 반도(坂東)연구원이 제공한 것이다.

112 50 菩薩戒本宗要 一卷 道峯 正平十四年(1359) 1 西大寺版의 계통

위의 기록으로 보자면 도다이지본과 간치인본의 『종요』는 같은 해에 간행되었는데, 도다이지본에 저자가 도봉으로 되어있듯이, 도봉의 서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도에 따르면 도다이지본은 사이다이지판 계통이라고 하지만, 1347년 간의 사이다이지본(미확인)에도 서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보살계본종요』는 사본, 활자본, 간본 등이 있지만, 대체로 에도시대 이후의 본이다. 그 대표적 예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서명	간행년	권수	소재지
①	菩薩戒本宗要	1645	1冊	國文學研究資料館.
②	菩薩戒本宗要	1671	1冊	龍谷大學圖書館
③	菩薩戒本宗要	1675	1冊	東洋大學哲學堂圖書館
④	菩薩戒本宗要(사본)	1722	2冊	藥師寺 金藏院
⑤	菩薩戒本宗要(활자본)	?	1冊	身延山圖書館
⑥	菩薩戒本宗要(사본)	?	2帖	大須文庫

이렇게 현재 ①에서 ⑥까지의 『종요』를 파악할 수 있다. ④와 ⑥은 미확인이지만 나머지는 도봉의 서문이 있고, ④와 ⑥은 같은 계통의 사본으로 생각되며, 간행연도를 고려할 때 도봉의 서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2 도봉 서문의 작성 시기와 전파

그렇다면 도봉의 서문이 언제 쓰여졌을까? 현재 도봉이 언제 활동했는지, 언제 서문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대체로의 시기는 유추할 수 있다. 1094년에 집성된 『동역전등목록』에는 『유가론결택보결초(瑜伽論決擇補闕抄)』 5권을 저술한 사람으로 ‘대천복사 도봉’의 이름이 나온다. 따라서 도봉은 법상유식에 능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094년 이전에 이미 도봉의 서문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의천록』에는 『종요』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종요』가 존재했던 것이 확실하다. 다만 여기에 도봉의 서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의천록』에 기록된 『종요』가 중국에서 역수입되었는지, 고려에 현존하던 문헌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본에 『범망경종요』가 언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정확하게 『종요』를 기록하는 것은 헤이안시대말기 사본인 『고성교목록』에 보인다.⁴⁸⁾ 다만 『범망경고적기』가 천주의 저술에 인용됨으로 비슷한 시기에 『종요』도 일본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다.

도봉이 주석한 대천복사에는 『범망경술기』를 저술한 신라승려 승장(勝莊)이 있었다. 유식학자로서 『범망경』 주석서를 저술한 것은 신라계학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유식학자로서 『종요』의 서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도봉 역시 신라계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태현의 『대승심로장』이 중국인에 의해 강의되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태현의 저술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단은 중국인 도봉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3.2.3 주석서의 고찰

3.2.3.1 주석서의 종류

일본 소재 문헌을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일본고전적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에서 ‘보살계본종요’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⁴⁹⁾

48) 落合 俊典,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第6卷)(東京: 大東出版社, 1998), 191-194.

49) 日本國文學研究資料館(http://base1.nijl.ac.jp/infolib/meta_pub/G0001401KTG)

No.	統一書名, 国書レコードか否か, 国書内同名異書連番, 分類, 作品著者名, 成立年, 書誌件数, WID
☐ 1	菩薩戒本宗要, N, 0, 太賢 撰, 2, 4368424
☐ 2	菩薩戒本宗要科, K, 1, 仏教, 叡尊, 文永一二, 0, 3994170
☐ 3	菩薩戒本宗要科分, K, 1, 真言, 0, 3994181
☐ 4	菩薩戒本宗要闡解, K, 1, 仏教, 寂隱, 3, 57352
☐ 5	菩薩戒本宗要簡註, K, 1, 仏教, 正亮, 1, 3994192
☐ 6	菩薩戒本宗要玉華鈔, K, 1, 仏教, 1, 3994205
☐ 7	菩薩戒本宗要見聞集, K, 1, 仏教, 0, 3994216
☐ 8	菩薩戒本宗要纂註, K, 1, 仏教, 正直(宗寛), 元禄三刊, 1, 57363
☐ 9	菩薩戒本宗要拾遺鈔, K, 1, 仏教, 定泉, 0, 3994227
☐ 10	菩薩戒本宗要拾義鈔, K, 1, 仏教, 英心, 0, 3994238
☐ 11	菩薩戒本宗要抄, K, 1, 仏教, 正保四刊, 0, 3994249
☐ 12	菩薩戒本宗要抄物, K, 1, 仏教, 0, 3994250
☐ 13	菩薩戒本宗要資糧鈔, K, 1, 真言, 通玄, 宝永四刊, 2, 3994261
☐ 14	菩薩戒本宗要枢鎖文集, K, 1, 仏教, 0, 3994272
☐ 15	菩薩戒本宗要雜文集, K, 1, 仏教, 覚盛, 安貞三, 0, 3994283
☐ 16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 K, 1, 仏教, 叡尊, 弘安八, 3, 57374
☐ 17	菩薩戒本宗要分科, K, 1, 仏教, 道峯, 1, 3994294
☐ 18	菩薩戒本宗要録, K, 1, 仏教, 0, 3994307

위 검색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를 제외하면 17종에 이른다. 이것을 <표 2>로 다시 정리하였다.

<표 2> 『보살계본중요』의 주석서

	대표서명	저자	발행년	권사항	소재처
①	菩薩戒本宗要科	叡尊	1276(文永 12)	1册	高野山眞別處, 高野山寶壽院, 日本大藏經大乘律章疏之余・日本大藏經小乘律章疏一
②	菩薩戒本宗要科分			1帖	高野山金剛三昧院
③	菩薩戒本宗要闡解	寂隱	1680(延寶 8)	3册	龍谷大, 東洋大哲學堂, 高野山眞別處, 唐招提寺, 東海學園名古屋哲誠
④	菩薩戒本宗要簡註	正亮	1690(元禄 3)	3卷3册	東洋大學哲學堂, 龍谷大, 高野山眞別處 【寫】唐招提寺(필사년 미상)

	대표서명	저자	발행년	권사항	소재처
⑤	菩薩戒本宗要玉華鈔			3冊	眞福寺-1344(康永3)祐禪寫, 大須文庫
⑥	菩薩戒本宗要見聞集		13-14세기	下卷만1冊	金澤文庫(寫)
⑦	菩薩戒本宗要纂註	正直	1690(元祿 3)	2卷2冊	龍谷大, 藥師寺金藏院, 東海學園名古屋 哲誠, 日本大藏經大乘律章疏之余・日本 大藏經小乘律章疏一
⑧	菩薩戒本宗要拾遺鈔	定泉	?	2卷	京都大, 唐招提寺(寫)
⑨	菩薩戒本宗要拾義鈔	英心		1冊	京都大(寫)
⑩	菩薩戒本宗要鈔	仙祐	1565(寫)	2卷1冊	本證寺
⑪	菩薩戒本宗要抄		1647(正保 4)	2卷1冊	大谷大, 龍谷大, 高野山眞別處, 唐招提寺, 本證寺, 東國大도대사업단
⑫	菩薩戒本宗要抄物		1632(寬永 9)	4冊	唐招提寺(寫)
⑬	菩薩戒本宗要資量鈔	通玄	1707(寶永 4)	1卷	龍谷大, 東北大, 高野山眞別處, 唐招提寺
⑭	菩薩戒本宗要樞鏡文集		13-14세기	2卷2冊	金澤文庫(寫)
⑮	菩薩戒本宗要雜文集	覺盛	1262(弘長 2)	1卷(寫)	京大(필사년미상), 東大寺(弘長二忍證필 사), 日本大藏經大乘律章疏三東大寺, T74
⑯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	叡尊	1644(正保 1)	2卷	東大, 高野山眞別處, 藥師寺(正保1)大正 大, 東洋大學堂, 龍谷大(正保2)〈刊年 미상〉高野山眞別處(上卷一冊), T74, 日本 大藏經大乘律章疏三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	叡尊 著	1664(寬文 5)	2卷2冊	東洋大學學堂
⑰	菩薩戒本宗要分科	道峰	1695(元祿 8)	1卷	1695(元祿 8) - 龍谷大 1675(延寶 3) - 龍谷大, 溫泉寺
⑱	菩薩戒本宗要錄		1722(享保七)	2卷2冊	藥師寺(寫)

<표 2> 가운데 사이다이 지 에이손(叡尊; 1201-1290의 주석서인 ⑯ 『보살계본중요보행문집』 2권본은 일본 『국역일체경』(제종부 16)에 수록되어 있다. 그 해제를 따르면, 에이손이 85세인 1285년(고안弘安 8)에 저술하였으며 『중요』 전체의 요지를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봉의 서문은 주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본⑥, 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봉의 서문에 대한 주석이 없다. 이 가운데 ⑥ 『보살계본중요견문집』은 신라 의적의 『보살계본소』와 사이다이 지 계통의 해석을 중용하는 문헌이다. 사이다이 지의 에이손 계통과의 관련을 상정할 수 있다. ⑭ 『보살계본중요추경문집』은 『중요』의 어구를 신라의 의적(義寂), 중국의 우영(遇榮), 전오(傳奧) 등의 『범망경소』를 활용하면서 태현을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가쿠조(覺盛)의 ⑮ 『보살계본중요잡문집』은 1228년에 카쿠조가 초했고, 1262년에 닌쇼가 필사했음을 밝히고 있다.⁵⁰⁾ 본서는 도봉의 서문부터 주석하고 있다. 따라서 1228년 이전에

50) 『菩薩戒本宗要雜文集』 T74.48a.

“草本云, 安貞二年戊子十二月二十一日未剋爲興法利生記之也. 覺盛生年三十六. 又云, 弘長二年壬戌十二月

도봉의 서문이 있는 『종요』가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쿠조보다 60년이나 늦게 주석된 에이손의 ⑩ 『보살계본종요보행문집』에는 어째서 도봉의 서문을 주석하지 않았을까? 이에 에이손이,

- a. 서문이 없는 계통의 『종요』를 주석했을 가능성
- b. 도봉의 서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부터 주석했을 가능성

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a.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다음의 ⑩, ⑪의 『보살계본종요초』를 소재로 풀어보고자 한다.

3.2.3.2 『보살계본종요초』의 현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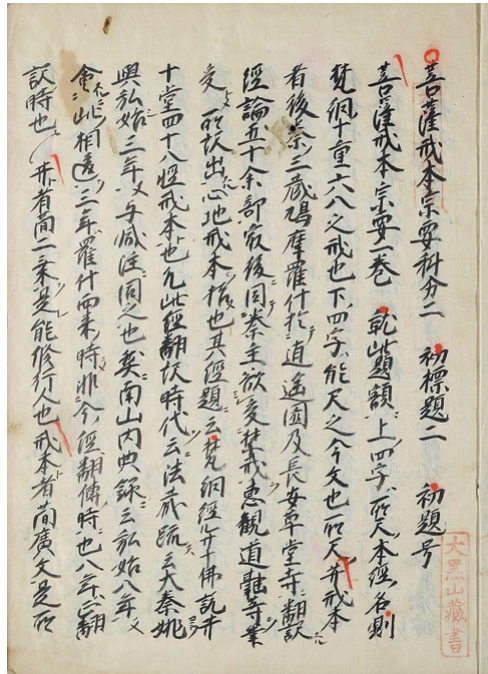
『보살계본종요초』는 사본과 간본 두 가지가 유통된다. 사본은 나고야 혼쇼지(本證寺)에 소장되어 있다. 이 본의 지어에는 1565(에이로쿠永祿 8년 5)과 1581(텐쇼 9)의 간기가 있다. 첫 번째는 센뉴(仙祐 당시 38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표지의 ‘仙祐記’와 일치한다. 따라서 1565년에 저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도봉의 서문에 대한 주석이 없다.

한편, 간본은 1647년(쇼호正保 4)에 간행된 것으로 현재 토대사업단이 일본 고서점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같은 판본이 오타니대(大谷大), 류코쿠대(龍谷大), 고야산(高野山), 도쇼다이지(唐招提寺), 혼쇼지(本證寺)에 소장되어 있다. 에도시대에 다량으로 인쇄한 판본이기 때문에 더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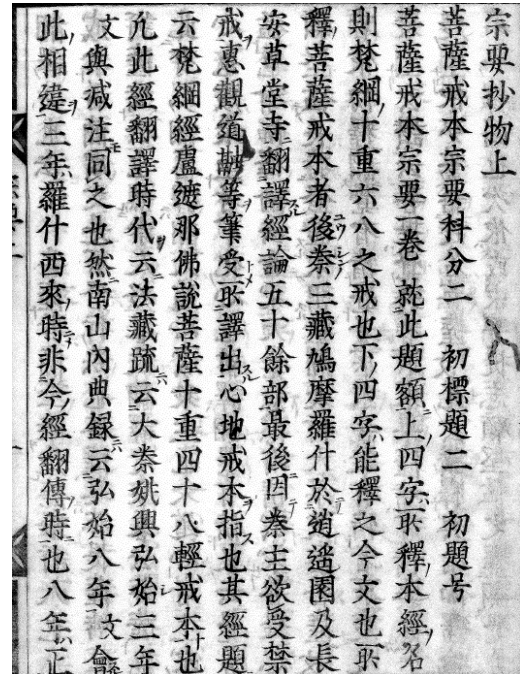
그런데 1647년의 간본에는 저자명이 없고, 지어 등도 없다. 그리고 1565년에는 없던 도봉의 서문에 대한 주석이 추가되었다. 1565년에서 85년이 지났으니 센뉴(仙祐)와의 관련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추정되는 것은 센뉴는 도봉의 서문이 없는 본을 주석하였고, 이후 유통과정에서 센뉴가 아닌 누군가가 도봉서문이 있는 본을 구입하여 이에 대한 주석을 추가하여 저자명을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두 본이 도봉의 서문을 제외하면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도봉 서문에 대한 주석 등을 보았을 때도 간본의 도봉 서문에 대한 주석의 저자가 사본의 저자인 센뉴가 아닌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은 도봉 서문에 대한 주석에서는 혼조보(本淨房) 도쿄 겐이(道敎顯意; 1239-1304)를 자주 비판하지만, 본문에는 그러한 비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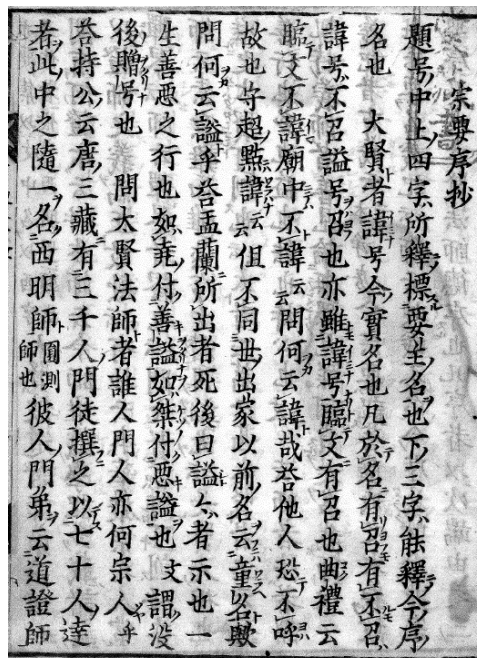
二十一日書寫之了。一向受持三聚戒，成就四弘誓願因。兼爲值遇先師靈。隨遂給仕之緣也。右筆忍證生 年二十五”



<사본 처음>



<간본의 중간>



<간본의 처음 - 도봉 서문에 대한 해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봉의 서문을 주석하면서, 태현법사에 대해서 서명사 원측, 원측의 문인 도증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설명한다. 태현이 도증의 제자인 근거로서는 태현의 『성유식론학기』에서 여러 설 가운데 도증사의 설로써 정의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본래는 화엄종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간본의 저자는 도봉 서문에 기록된 ‘太賢法師義記’의 ‘의기’에 대해 해석하면서, 본 『종요』가 보살계의 대의를 기록했기 때문에 본 『종요』를 『의기』라고 한다는 혼조보(本淨房)의 설을 스승의 말을 빌어 비판하고, ‘의기서(義記序)’는 『종요』의 서(序)가 아니며, 태현법사의 덕을 찬탄하는 서문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기』는 『고적기』에 붙어도 좋고, 『유가찬요』에 붙어도 된다고 하고 있다.

도쿄 겐이는 일본 정토종 인물인데 『정토종요집』에서는 스스로를 혼조보(本淨房)라고 한다.⁵¹⁾ 『종요초』에서는 스승의 이름을 빌어 혼조보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쿄 겐이도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해석 내지는 저술을 지었음 것으로 추정되며, 간본 『종요초』에서 도봉의 서문을 해석한 저자는 법상종의 학승으로 도쿄와는 학파를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봉 서문을 해석한 저자는 도봉이 동국의 태현법사야 말로 법상종의 전통을, 1500년을 이어 다시 교법을 세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통해 볼 때, 본래 서문이 없었던 본을 주석한 셴뉴(仙祐)의 저술에 그 문하 중 누군가가 도봉 서문이 있는 본을 구해 주석하면서 저자명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종요』에는 도봉서문이 붙은 본과 붙지 않은 두 본이 일본에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3.3 확장성의 의미

이상으로 『종요』가 중국과 일본에 유통되고 주석서를 통해 전승되는 과정을 『종요초』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종요』는 신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어, 중국에서는 서문을 통해, 일본에서는 주석서를 통해 재탄생하였다. 또한 도봉의 서문이 있는 『종요』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면서 주석이 확장되어가는 모습도 고찰하였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지형도로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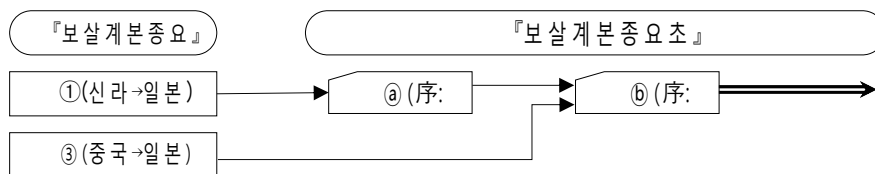
51) 『정토종요집』 T83.462a.

“弘安四曆辛巳歲冬十月上旬. 於西山北尾往生院本淨房記之”



<지형도 1> 『종요』의 확장도

<표 3> 『보살계본종요초』의 전개과정



위 <지형도 1>과 <표 3>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종요』는 저술되자 바로 일본으로 전래되고, 얼마 후에 중국으로도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종요』가 활용된다. 이후 어느 때인가 중국에서 도봉의 서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1228년 이전에 일본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전해짐과 동시에 일본의 중세 계율에 대한 인식과도 맞물려서 가마쿠라시대가 되면 활발히 주석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주석서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종요』, 즉 도봉의 서문이 없는 본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도봉의 서문이 붙은 본이 동시에 유통되면서 주석서에도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주석에 도봉의 서문이 없는 것과 도봉의 서문부터 주석하는 유형이다. 이후에는 주석을 해석하는 형태로 통일된다.

『종요』는 위와 같은 흐름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서 연구되며 확장되었다. 특히, 도봉의 서문이 붙은 『종요』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그 확장성은 재탄생과정을 거치며 전개된다. 그러면서 태현은 법상종의 정맥을 이은 학승으로 이해되고 존송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태현 또는 태현의 저술이 다종으로 주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확장성을 의미하며, 나아가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불교의 확장성을 탐구하는 것은 한국학의 범주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는 이와 같은 주석서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그 전개되고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새로이 한국학의 범주에 포함하여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이상으로 한국불교의 확장성에 초점을 두고 11명의 한국찬술 불교문헌에 대한 주석서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우선, 『석마하연론』과 『천태사교의』의 주석서는 중국과 일본에 종류가 많다. 이는 한국불교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헌들이다. 향후 철저한 목록조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원효 저술에 대한 주석서 가운데, 특히 『지범요기』와 그 주석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원효 이해의 차이 및 해석의 사상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원효전기에 대해서도 원효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및 중국, 일본의 전승을 비교할 수 있다. 『화엄연기』는 원효와 의상 두 승려에 공통되는 인물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의상의 『법계도』는 7언30구가 악보로 만들어져 의례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법계도』가 중시된 특이한 예이다.

『기신론일십이문대의』는 최근에 신라찬술설이 대두된 문헌이다. 『기신론』을 중시한 원효, 태현, 연기 등의 계보를 잇는 문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가사의의 『대비로자 나경공양차제법소』는 일본에서 8종의 주석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밀교의례에서 중시된 문헌이다. 아직 이 문헌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주석서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불교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 『선가귀감』의 연구는 일본 임제종에서의 해석이 니만큼, 휴정의 선사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선가귀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선사상이 전개되는 일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확장성은 한국불교의 문헌이 주석서를 통해 해석되고 재탄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불교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확장성을 의미하며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불교의 확장성을 탐구하는 것은 한국학의 범주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는 이와 같은 주석서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의 확장성의 의미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菩薩戒本宗要』 T45

『東域傳燈目錄』 T55

『唯識分量決』 T71

『菩薩戒本宗要雜文集』 T74

『淨土宗要集』 T83

〈한국어 저술〉

- 김상현. 『원효연구』 『『菩薩戒本持犯要記助覽集』의 검토』. 민족사, 2000.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연구 -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 신구문화사, 2010.
- 김지연. 『釋摩訶衍論의 註釋的 研究 - 海東疏와 法藏義記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3.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공편.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서울: 삼경문화사, 2012.
- 옥나영.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유통과 그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17.
- 이 만. 『한국유식사상』. 서울: 장경각, 2000.
- 최원식. 『신라보살계율사상사연구』. 서울: 민족사, 1999.
- 한국학관계 논저목록 전산화작업 운영위원회. 『한국학관계 논문집 및 목록집 안내』.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한국어논문〉

- 김종진. “한국불교전서 증보 편찬의 방향.” 2013년 불교학술원 하계 워크숍 『한국 불교문헌의 집성, 편찬, 서비스 현황과 과제』. 2013년 7월5일-6일. 동국대 만해마을캠퍼스. 63-104.
- 김천학. “『법화경론자주』 사본의 유통과 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 24(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156-180.
- 김천학. “금강삼매경론.” 『테마불교』 5(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77-113.
- 박광연. “보살계사상의 전개와 『菩薩戒本持犯要記』.” 원효성사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 - 원효 찬술문헌의 계보학적 성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HK연구단 주최. 2017년 5월 19일-20일. 87-111.
- 張文良. “『석마하연론』의 찬술지에 관하여 - 『석마하연론』의 ‘사상’해석을 단서로 삼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공편.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297-324.
- 최연식. “신라불교문헌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불교학연구』 13(서울: 불교학연구회, 2006). 5-33.

〈일본어저술〉

- 神奈川縣立金澤文庫・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院HK研究団共同特別展示會. 『アンニョンハセヨ！元曉法師 - 日本から見つめた新羅・高麗仏教』. 神奈川金澤文庫, 2017.

- 吉津宜英. 『華嚴一乘思想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91.
- 東大寺教學部. 『凝然大師事績梗概』. 奈良: 東大寺, 1971.
- 落合俊典.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第6卷). 東京: 大東出版社, 1998.
- 白洲正子. 『明恵上人』. 東京: 新潮社, 1999.
- 福士慈稔. 『日本佛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教認識に關する研究』 제1권 日本天台宗, 제2권 上三論宗, 제2권 下 法相宗, 제3권 日本華嚴宗. 山梨: 身延山大學, 2011-2013.
- 福士慈稔. 『新羅元曉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2004.
- 石井公成. 『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96.
- 井上光貞. 『信訂 日本淨土教成立史の研究』. 東京: 山川出版社, 1981.

<일본어논문>

- 金天鶴. “金澤文庫所藏、円弘の『妙法蓮華經論子注』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通号 126(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12). 154-161.
- 牧野和夫. “仲範撰述の一書『持犯要記俗書勘文抄』一紹介と翻印,附二十二卷本『表白集』目錄一覽等一.” 『實踐國文學』 42(東京: 實踐女子短期大學, 1992). 69-91.

<참고 웹사이트>(2017년6월18일현재)

-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 日本古寫經研究所.
<<http://www.icabs.ac.jp/koshakyo/symposium20140726/Ochiai2.html>>
- 日本國文學研究資料館.
<http://base1.nijl.ac.jp/infolib/meta_pub/G0001401KTG>

